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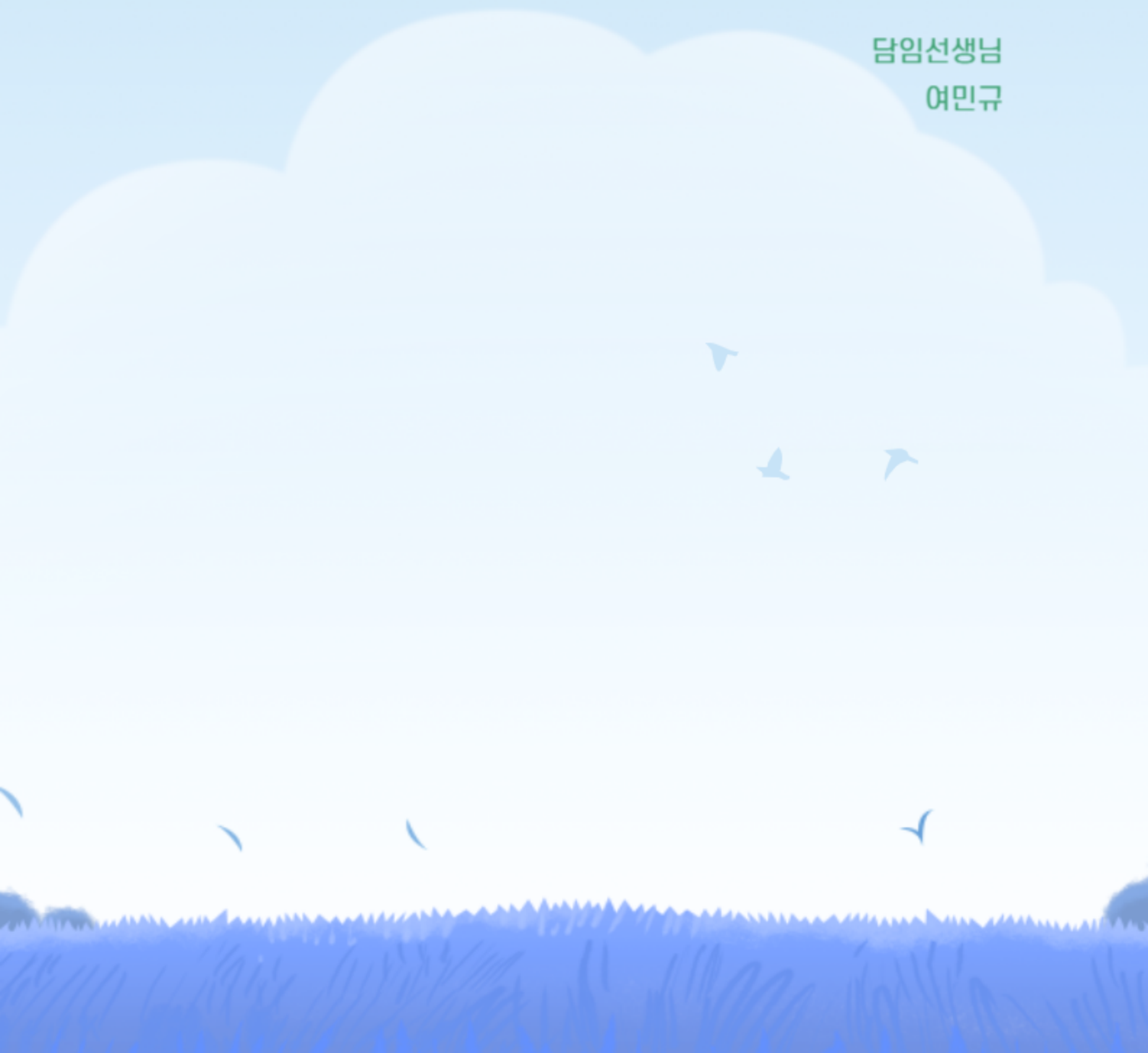
보 고

읽 고

쓰 는

글, 그림
5학년 6반

담임선생님
여민규



목차



..... 2024. 3. 4~

..... 1. 우리반은...

우리반의 모습

우리반을 한 마디로
말하면?

..... 2. 우리의 솜씨

내가 쓴 시

나의 이야기

우리반의 모습

하나가 되었던 체육대회



즐거운 갯벌 체험



PHOTO



LIKE



COLLECT



SEARCH

신나는 과학 축제



열정적인 사물놀이 연습



PHOTO



LIKE



COLLECT



SEARCH

우리의 솜씨 자랑



PHOTO



LIKE



COLLECT



SEARCH

우리반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웃기다

공룡

비둘기

특이하다

신기하다

노트북

조용한 날이 없다.

이상하지만 재미있다

특이하다

좋다

재밌다

재밌고 적극적이다

난장판

희망

매우 특이하다

수상하고 애들 기운이 이상하다

공부를 싫어한다

활발하다

시끄럽다

개구쟁이

특이하다

난장판

다 알고 있는데

김가영

다 알고 있는데도
다 품고 있는데도
다 말을 못하겠어
다 나의 잘못같고
다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다 내 잘못같아

울집 강쥐

김하울

우리집 강아지
산책하고 싶으면 창밖을 본다
간식이 먹고 싶으면 내가 먹는 음식을 탐낸다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톡톡치면
그래도 강아지라고 짖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쁜 울집 강쥐가 얼굴을 보인다

잘 때도, 놀 때도, 먹을 때도 언제나 귀엽다
차에선 창가에 있는 사람에게 창밖을 보여 달라며
고집 부리는 강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김희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아이돌이다
참 잘생겼고 귀엽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완벽하다
얼굴, 성격, 비율 모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유명하다
모아 덕분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좋아하는 이후
행복해졌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데뷔일이
2019. 03. 04이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노래 제목이 길다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처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재미있다
예능인처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박채원

투바투는 사랑이다
투바투는 귀엽고 잘생겼다
투바투 노래도 사랑이다
내 최애 노래는 Drama이다
나는 모아이다
모아인걸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

예지효

소중한 사람이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슬플 때
같이 울 사람이 있는 것

소중한 사람이란

친구

윤수지

이쁜 내 친구는
우리 동네 아이돌이다

춤 잘추는 내 친구는
우리 동네 아이돌이다

노래 잘 부르는 내 친구는
우리 동네 아이돌이다

6반

이서안

5학년 6반 우리반은
어떨때 엉뚱하고
어떨때 무섭고
또 어떨때 신기하다

그럴 때 함께하는게
우리 5학년 6반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게 우리 6반

5학년 6반은

장수담

아이돌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웃기고, 노래를 자주 부른다

또 다른 친구는 쉬는 시간에도 책만 읽는다
가끔씩 말을 걸어도 바로 책을 읽는다

반대로 보드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친구

정세연

내 친구는 이쁘다
나에겐 공주로 보인다

내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
내 생각엔 똑똑이인 것 같다

내 친구는 간식을 좋아한다
간식 러브걸이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최가현

푸를 청, 봄 춘 청춘
투바투라는 그룹이 있으면
나에게도 봄이 오는 것 같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 중
"쿼터라이프"라는 노래 구절 중
비끗하면 어때 네가 잡을테지 나의 손

나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봄을 주는 것 같아서
모아가 되었던 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파충류

강은준

파충류는 솜뭉치같다

파충류는 솜뭉치같이 작은 녀석도 있다
어떤 녀석은 큰 기둥같이 든든하다

하지만 나한테는 귀여운 애들이다

우리반 수업

권형중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재밋고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반
역시 우리반

쉬는 시간에
시끄럽고 재미있는 얘기로 가득찬 우리반
역시 우리반

복도에 나가면
빨리 줄서라고 하고
조용해지는 우리반
역시 우리반

점심 시간에 피구공을 사면
밖에나가 시끄러운 소리는 내지만
누구보다 재밋는 피구를 하고
땀이 난 채로 반으로 오는 우리반
역시 우리반

학교가 끝나면
청소하고 떠들면서
서서히 조용하고 수업을 마치는 우리반
이번에도 역시 우리반이었다

증권

김승유

오늘은 나의 증권이
파란불일까? 빨간불일까?

와! 빨간불!

어? 파란불 ...

오늘 50만원이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팔라고 할 때 팔 걸...

1달은 라면이다

증권 한 번 더!

아. 또 나락 100만원도 세상을 떠났다

이번주는 굶는다

60만원을 추모해주자

비트코인

김이환

비트 코인은 도박이다

비트 코인 빨강 파랑이 왔다 갔다
아 제발 그만 오르락 내리락
이제 지겹다 팔기..

다음날 떡상했다
아 내 돈

아이디어

박성찬

내가 뭘 써야 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국어 시간에도
미술 시간에도

뭘 써야 할지
뭘 그려야 할지

내 머리엔 뭐가 든 걸까

증권

박준서

떨어지는 내 증권은
위에서 떨어지는 바다

오르락 내리락 증권은
올라가기 힘든 산이다

증권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놀이 기구이다

친구야 나무하러 가자

이규선

친구야 나무하러 가자!
배 아파서 못가겠네

무슨 배?

돌배

무슨 돌?

바윗돌

무슨 바위?

감자바위

무슨 감자?

돼지감자

무슨 돼지?

꿀돼지

무슨 꿀?

단 꿀

무슨 단?

장단

무슨 장?

된장

된장에 밥 비벼먹고 어서가자 친구야!

비트 코인

이시윤

비트 코인은 도박이다
비트 코인은 언젠가는 파산할 수 있다

헐 올랐다! 어?... 내려가네...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가면 부자된다
내려가면 큰일난다
차라리 하지 말자

행복

이현서

네잎클로버 같은
순간의 행운 때문에

세잎클로버 같은
지금의 행복을 밟지 말아라

지금 행복이 없어도
은방울꽃이 말해주길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사계절

정준우

봄이 왔다
봄은 꽃이 웃는 계절
혹독한 겨울을 나고 꽃을 피운 벚나무

여름이 왔다
여름은 나무가 힘을 내는 계절
꽃이 지고 푸릇한 잎이 뚝고 나온 은행나무

가을이 왔다
가을은 하늘에 물감이 뿌려지는 계절
부끄러워 나뭇잎을 새빨갭게 물들인 단풍나무

겨울이 왔다
겨울은 소복소복 작게 자른 작은 종이가 떨어지는 계절
종이가 세상을 덮었을 꽃이 피는 동백나무

친구

한지훈

내 친구는 멋지다
우리반 인싸다

내 친구는 착하다
대인배다

내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
천재다

파스타

황예찬

파스타 면은 기차
기차는 길다

길면 빨대
빨대는 굵다

굵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노란색

노란색은 병아리
병아리는 동물

동물은 생명
생명은 중요하다

중요는 공부
공부는 어렵다
어려운건 인생

과일

정다운

바나나는 노란색이다
노란색 과일은 레몬이다

딸기는 빨간색이다
빨간색 과일은 사과이다

귤은 주황색이다
주황색 과일은 오렌지이다

바나나 우유

정유민

바나나 우유는 맛있다
바나나 우유는 달다

나는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먹는다

나의 두번째 힐링
바나나 우유

수지 닮은 수지의 앵무새



김가영

저번주 금요일날 수지가 앵무새가 2마리나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는 큰 앵무새 한마리 더 데려온다고 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지가 집에 초대를 해준다고 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 수지에게 연락이 왔다. "달려 오셈"이라는 내용의 톡이었다. 난 그걸 보자마자 수지네로 자전거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수지집으로 갔는데 처음 본 순간 "어? 수지 닮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눈이 크고 통통하고 귀엽고 부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수지의 앵무새에게 신나도록 춤을 춰줬는데 그 앵무새도 몸을 호로롤로롤 하면서 몸통을 흔들었다. 그래서 춤을 더 쳤는데 수지의 앵무새가 까까 ㅏ ㅏ까 ㅏ 소리를 질렀다. 무서웠는데 수지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는거 같아서 감동 받았었다.

다음에 그 앵무새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첫번째 해외여행

김하울



나는 2023년 4월8일에 베트남여행을 갔다. 엄마,아빠,나,동생, 이모,사촌언니,삼촌 이렇게 베트남 다낭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우리 가족과 이모 사촌언니는 비행기를 동일하게 예약했지만 삼촌 혼자 그 다음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래서 우리끼리 갈 준비를 부랴부랴 할 때 삼촌은 팔짱을 끼고 의자(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삼촌 표정이 ㅋㅋㅋㅋ. 암튼 이렇게 나의 1번째 해외여행이 시작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이드를 찾았다. 가이드는 한국말도 잘해서 아주 좋았다. 사실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한것은 아니고 연습과 읽는 연스?등을 했나보다. 그래도 한국인의 한국 발음을 이기진 못하지롱!! 아무튼 우리 가이와와 함께 호텔에 갔다. 가이드는 우리가 동생을 신경 못 써줄 때 가이드가 동생을 챙겨주고 이야기해주어서 좋았다. 우리 삼촌을 기다렸다가 호텔에서 나와 밥을 먹으러가기로 했지만 난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잠만 자다가 1시간 남았을 때 배가 고파서 일어난 상태로 '베트남'만 도착하면 바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줄테야 호호호'라고 생각했기에 5시간 동안 삼촌을 기다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었다. 아무튼 우리 삼촌이 온 후에 바로 식당에 갔다. 그런데 식당 옆에 회집에 가면 있는 어항(?)이 있었는데 그안에 난생 처음으로 보는 바다생물이 있었다. 바로 쥐며느리를 닮은 바다생물이 있었다. 정말 징그러웠다. 뭔가 공벌레와 쥐며느리를 섞어 만든 것 같아서 더욱더 징그러웠다. 아무튼 나는 랍스터, 수박주스, 볶음밥, 새우 등등 여러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건 나만 먹는게 아니고 가족과 이모 삼촌 사촌언니까지..... 그러면 거의 80-100은 나올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이 정도를 먹으면 비싸게는 진짜 비싸게 나오는데... 아빠가 계산을 하고 나오면 기분이 안좋아 보일 줄 알았는데 아빠가 happy 표정으로 나온것이다. 나는 얼마냐고 물었다. 그런데 몇 동이라고 말했는데 기억이 안나고 어찌피 몇 동이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기에 패스하고... 호텔에 돌아가기 아쉬운 그때 바다에서 클럽(?)분위기가 나있었다. 우리 바다로 갔는데 너무 좋고 바다 모래위에 소파가 있었다. 그렇다 그곳은 음료를 파는 곳이었다. 그런데 음료만이 아니고 디저트를 팔았는데, 디저트 퀄리티가 무슨 호텔에서든 그렇게는 안줄 것 같은 비주얼이었다. 난 밥도 배가 터지게 먹고도 디저트 배는 따로있었나 보다. 바닷 물에 발도 담구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라면도 먹고 잘 놀았다'라고 생각할 때 즈음 엄마아빠가 다른 숙소로 간다고했다. 아!!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한 룸에서 못가지구 방을 3개?? 정도 잡았다 삼촌 따로 우리가족 따로 이모네 따로 그런데 엄빠가 나한테 난 이모네 룸에서 자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다. 다음날 내가 곤히 자는 중이었는데, 사촌언니는 이제 그냥 언니라고 해야겠다. 암튼 언니가 나를 깨웠다. 난 일어나서 놀러갈 준비를 했다. 아 조식을 먹고 놀러 갔다. 근데 조식이 너무 맛있었다. 진짜 맛있게 먹고 룸에 올라가서 옷을 입고 양치를 했고 세수도 하고 양말도 신었다 이제 부모님을 기다렸다가 삼촌이 오면 가는것이였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걸어다니는데 아빠가 근처에 콩카페라는 카페에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가는길에 썬 길거리에 있는 시장 뿔 되는 곳이 있었다. 거기에 가서 노란색 꽃 원피스를 입기로 하고 사서 카페에 가서 수박 주스를 마셨다. 나는 베트남에 가서 먹은 음식 중에 그 기간 음료도 포함으로 했을 때 손꼽는 음식과 음료가 있었다. 바로 수박주스와 파인애플 볶음밥 이었다. 파인애플 볶음밥이 맛이 없을것같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과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한 숟가락 먹었는데 진짜 새콤 달콤 짭짤이 어울려 환상의 맛이였다. 그리고 마트도 가고 여러 장소를 가서 놀고 먹고를 반복했다.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다. 바닷가를 가서 솔직히 바닷가였는진 자세히 기억이 안난다. 암튼 거기에서도 음료를 마시다가 에서 핫도그를 팔길래 가서 사려고 했는데 보니 반미여서 우리 아버지가 안 사줬다. 그리고 우리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다. 근데 난 정말 잠을 잘 못 잔것 같았는데 아빠였나? 이모였나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 정말 잘 자고 있었다. 몽가 녹은 아이스크림 같았다. 분명 계속 깨서 잘 못 잤는데.....

아무튼 나의 첫 해외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을 오기전에 아니 공항으로 갈때 비행기를 타고있을때 비행기가 한국으로 향할때 전부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났고 너-----무아쉬웠다. 사실 다낭여행도 원래는 코타키나발루에 갈려는걸 내가 베트남 가고싶다고 해서 베트남을 갔다는 사실 ㅎㅎ

해외여행



김희원

여름방학 때 나는 해외여행을 중국으로 갔다. 엄마께서는 일을 하러 가셨지만 나는 엄마를 따라가 재미있게 언니와 놀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중국에서 다시 태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갔었다.

4시간이 걸려서 힘들긴 했지만 비누도 많이 사고 인형 뽑기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먹었지만 하나같이 다 내 입맛은 아니어서 많이 먹지 않았다. 태국은 음식에 고수를 많이 넣는 같았다. 내가 먹은 것 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살짝 시큼했다. 태국 펜션에 수영장이 있어서 언니와 같이 수영하다가 발 여러 군데 상처가 생겼다. 하지만 나는 상관 없이 계속 놀다가 다음 날에 어른들은 일을 하고 나는 언니와 당구를 치다가 코끼리를 타러 갔다 코끼리가 물로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 충격이다. 너무 더웠다 그리고 다음날 놀러 가다 편의점을 들렸는데 김이 있어서 사 먹어 봤다 많이 들어있고 맛있어서 2개를 사고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올 때 6시간에 걸쳐 돌아오는데 기내식 한번을 안 줘서 기분이 참 앵그리 했다. 그래도 재미있고 알찬 여름방학이었다. 만족^^

투바투 VR



박채원

나는 투바투 브이알을 보러가기 위해서 코엑스를 갔다. 가는 도중에 차가 너무 막혀서 멀미가 났다. 그래도 브이알을 볼 생각에 떨렸다.

도착을한후 포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받으러 갔다. 그리고 아트박스를 갔다. 그리고 친구 가현이를 만나러 가는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배우들을 봤다.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가현이를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약속 장소에서 좀 시작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입장을 했다. 들어가는 입구에 투바투 등신대?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영화관에 입장을 하자 투바투 뮤비가 틀어져 있었다. 브이알 기기를 켜는데 브이알 기기가 너무 무거웠다. 그치만 브이알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재미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고싶다.....! 꼭 다시 기회가 되면 보고 싶다. 그리고 가현이랑 다시 아트박스에 갔다.

해리 포터



예지효

나는 명절 동안 해리포터를 영화로 보았다. 해리 포터의 등장 인물은 해리 제임스 포터는 명절 동안 해리포터를 영화로 보았다. 해리 포터의 등장인물은 해리(해리 제임스 포터), 론 위즐리,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해리 포터 가장 소중한 친구이며, 론 위즐리의 부모인 아서 위즐리와 몰리 위즐리는 해리 포터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양부모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해리 포터는 용서받지 못하는 저주들을 셋 모두 한 번 이상 당하고도 살아 남은 유일한 인물이다. 아바다 케다브라는 두 번, 크루시아투스 저주는 네 번 맞았고, 임페리우스 저주는 여러 번 맞았다. 볼드 모트는 마법사 세계에 있어 다시 있어선 안 될 악인이다. 해리 포터 영화에서는 싸움이나 배신으로 희생자가 많았다. 해리 포터는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미있던 영화였다.

내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윤수지



어느 날 윤모씨는 배가 고파서 아보카도 죽을만들어서 먹으려고 주방에 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보카도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딱딱 해서 아보카도를 손가락으로 찢는데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믹서기에 아보카도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손가락으로 섞었다. 완성되고 나서 설탕과 소금을 넣었다. 그래서 완성된 아보카도 죽을 먹었는데 맛있긴 했지만 썩은 굴 맛이 났다. 근데 끝맛이 너무 써서 설탕을 국자로 부었더니 너무 단 달고나 같은 맛이났다. 그래서 탕후루가 갑자기 땡겨서 만들었는데 계속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끓게 해봐도 끓지가 않아서 설탕을 봤는데 설탕이 아닌 소금이였다.

다음에는 잘 보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 끝..^^

12년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이서안

에버랜드를 가는 날이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9년 지기 절친 지윤이와 같이 차를 탄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 이모가 말했다. 그렇게 1시간 후... 난후... 난 너무 심심해서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 핸드폰엄마... 핸드폰 해도 돼...?" "...엄마는 돼...?" "...엄마는 돼...?" "...엄마는 잔다. 지금이 기회다! 한참 게임을 하다 보니 도착했다. 온몸이 땀을 흘려서 자마자 의자에 누웠다. 그러고서 2시간 정도 잤다. 드디어 입장!! 들어가자마자 판다부터 봤다. 푸바오는 가서 없었고, 루이바오랑 후이바오가 있었다. 그런데 루이바오가 코 박고 자고 있었다. 너무 귀여워서 사진도 찍었다. 판다를 다 보고서는 새 공연도 보고 펭귄도 보고 또 물개와 바다표범도 봤다. 그리고 썬더폴스를 탔다. 우비를 가져가서 별로 많이 안 젖었다. 그러고서 지윤이와 롤링 익스트레이너를 탔다. 360도를 연속 두 번 도는데 재밌어서 한 번 더 탔다. 그리고 더블락스핀, 챔피언쉽로데오, 바이킹 등등을 탔다. 타다 보니 배가 고파서 한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재료소진이란단... 어쩔 수 없이 우동을 먹었는데, 메밀도 있어서 아주 맛있게 후루룩 짹짹 먹었다. 밥 다 먹고, 이솝 빌리지(에버랜드에 있는 작은 보험 마을)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놀이기구 약 5개 정도를 막힘없이 쭉쭉 탔다. 다 타니까 오후 4시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러 갔다. 엄마는 다 젖었는데, 스릴 있는 걸 좋아하는 첫째 동생은 하나도 안 젖었다. 나도 엄청나게 젖어서 선풍기로 한참을 말렸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지윤이네는 7시쯤 먹는다고 해서 그냥 지금은 간식 먹고 호랑이도 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바로 우리 앞으로 와서 깜짝 놀랐다. 먹고 있던 소시지도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마지막 놀이기구 허리케인을 탔다. 허리케인도 두 번이나 타서 퍼레이드 자리 뺏길 뻔했다. 퍼레이드가 너무 길어서 졸 뻔했다. 이제 불꽃놀이 타임이다.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이때 든 생각이 '에버랜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시끄럽겠다...' 암튼 불꽃놀이까지 잘 보고 집에 갔다. 다음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낚시를 즐겨하시는데, 우리도 낚시하러 오라고 전화하신 거다.. 그래서 엄마는 안된다고 애들 힘들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냥 간다고 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낚시터로 갔다. 가자마자 짜파구리 먼저 먹고 낚시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할아버지가 한 마리 잡으면 2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난 4마리나 잡아 버렸다. 그리고 아빠도 한 마리당 1만 원 준다고 해서 총 12만 원을 받아 버렸다. 이제 야식으로 라면 먹고 내일 한번 더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가자고 해서 가서 잤다. 끝--

추석

장수담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몇 시간 동안 차에 있었다.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오자마자 4살 동생이 놀아달라고 말했다. 웃는 동생을 보니 귀여웠다. 그렇게 계속 놀아주다 보니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또 한참을 쉬고 동생이랑 오빠랑 놀았다. 동생은 잠이 오는지 엄마랑 있었다. 그래서 그 때 오빠랑 같이 놀았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또 동생과 놀아주다 친할머니 댁으로 갔다. 가기 전에 점심을 먹고, 친척을 만나서 마트에 갔다. 동갑인 사촌이 있어서 같이 사고 싶은 걸 샀다. 그리고 친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같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

몸이 바빠서 사촌이랑 산책을 했다. 아직 저녁 되기 전이라서 깜깜하지는 않았다. 산책을 하는데 할머니 댁 가는 길에 연기가 나서 불이 난 줄 알고 빨리 가려고 했다. 근데 할머니 댁 동네는 미로처럼 생겨서 가기 어렵다. 어쨌든 도착했을 때는 그냥 요리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시 와서 사촌이랑 실컷 게임을 했다.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남골당에 가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고 사촌은 갔다. 그렇게 혼자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고모들이 오셔서 다시 친할머니 댁에 다시 가서 고모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후 그날 저녁 10시에 출발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도착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잠에 들었다. 계속 차에 있어서 피곤했다. 다음날은 실컷 쉬기만 했다.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경험



정세연

9월 9일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설레었다. 1시간 30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먹고 젤리도 먹었다. 1시간 30분이 지나 일본에 도착한 뒤 바로 호텔에 가서 짐을 두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다.

거기에는 많은 공원 있는데 그중 난 해리포터 공원과 마리오 공원이 가장 좋은 거 같았다. 해리포터 공에는 해리포터 지팡이를 살 수 있었다. 그 지팡이가 해리포터 영화와 똑같았던 것 같아서 신기했다. 그 지팡이로 마술도 부릴 수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호텔에 가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전철을 타고 오사카역으로 가서 지하에 있는 상가도 구경하고 장어덮밥을 먹으러 갔다. 진짜 엄청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한국 가기 전에도 또 먹고 한국으로 간 거 같다. 장어덮밥을 맛있게 먹은 뒤 세븐일레븐에 가서 밀크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맛있었다. 입안이 달달 하였다. 돈키호테도 가서 여러가지 일본 간식들이 엄청 많이 봤었다. 전부 다 맛있어 보여서 다 쓸어 담았다. 귀여운 치이카와도 샀다 아주 귀여웠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인 거 같다 다음에도 일본에 가고 싶다.

덕질하는 이유

최가현



내가 덕질을 시작한 계기는 1학년때 BTS라는 아이돌이 인기였고 내 단짝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좋아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같이 입덕을 하게 되었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좋아져 진짜 아미가 되었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4학년 때 탈덕을 했고 방탄소년단을 탈덕하고 1개월 뒤 NCT라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다가 NCT그룹 멤버가 논란이 생겨 탈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아이돌 그룹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다가 SNS에 뜬 아이돌 그룹(별의 낮잠)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고 노래 분위기가 내 취향이길래 노래 제목을 알아보다가 멤버들이 너무 잘생겼길래 그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는 막 좋아하진 않고 조금 좋아하다가 라이브나 자체 텐츠 등을 보다 보니 투바투의 매력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느낀 투바투의 매력은 귀엽고 잘생겼고 재밌고 광기 가득하고 세계관이 독특해서 어느 날 머리에서 뿜이 자랐다, 자정의 창가에서 만난 악마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9와 4분의 3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5시 53분 하늘에서 만난 너와 나, 기적은 너와 내가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어 등등의 매력적인 노래들을 찾아들었습니다. 이러한 곡들이 내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콘서트도 가고, 생일 카페도 가고, 인형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싶습니다

롯데 월드에 갔다!



강은준

난 오늘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오늘 롯데 월드에 가기 때문이다.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

가고 나서 30분이지 나니 n 서울 타워를 보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63빌딩을 보았다. 63빌딩을 보고 신기했던 점은 정말 유리창이 금색이었던 점이 정말 신기했다.

이제 롯데월드에서 들어갔다. 일단 파라오의 분노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회전목마 아틀란티스를 탔다 아틀란티스 무서워서 타기 싫었지만, 결국엔 탔다. 아틀란티스의 최고 높이인 22m에 도착했다. 22m 위에서 아래를 보니 정말 무서웠다. 잠시 후 떨어지니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다음으로 번지 드롭 회전 그네 해성 특급을 탔다. 그리고 나서 풍선 비행을 탔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밋드의 모험을 타고 이제 기념품을 사고 이제 롯데월드를 나가서 아쉬웠다.

차에 타고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타야지!!

학교에서 에버랜드 체험

권형중



8월달 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에버랜드 체험을 했다.처음엔 오프닝 송을 들으며 에버랜드를 입장했다. 오프닝송을 들으니까 입장을 하기 전에 뭔가 더 신났다. 에버랜드에 입장했다. 먼저 탈 놀이기구는 바로 썬더폴스 였다. 썬더폴스 테마송을 들었다. 신나는 썬더폴스 테마송을 듣고 썬더폴스를 탔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었다. 다음에 탈 놀이기구는 바로 아마존 익스프레스였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썬더폴스 다음에 아마존 익스프레스 였던 것 같다.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탈 때 주변 분위기가 마치 진짜로 아마존에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 실감 나서 재미있었고, 놀이기구도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다음에 탈 놀이기구는 바로 T 익스프레스였다 실제로 T익스프레스를 타는것은 아니였어도 생각보다 무서워보였다. 실제로 타지는 않았지만 대신 학교에서 재미있는 T익스프레스 영상을 봤다. 우리반 전체가 T익스프레스 영상을 보고 웃었다.

아무튼 학교에서 에버랜드 체험을 하고 나니 또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진짜로 에버랜드 에 온것 같은 재미있는 학교 체험 이었다.

제주도 여행

김승유



9월 13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양치와 세수를 하고 짐을 챙겨 차에 타 김포공항으로 갔다. 김포공항에서 7시에 비행기를 타 약 8시에 제주도에 도착했다.

렌터카를 타고 알파카 농장으로 갔다. 알파카 농장에서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었다. 갑자기 알파카가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양이 있는 곳으로 가 양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다음 바다에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을 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런지 배고팠다. 횃집에서 회와 매운탕을 먹었다. 배를 다 채운 다음 트릭아트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나왔다. 그다음 숙소로 갔다. 숙소에서 수영장에서 1시간 정도 놀다가 저녁을 밥을 먹을 식당이 없어 편의점에서 컵밥과 라면을 먹었다. 밥을 먹고 숙소 지하에 있는 게임을 하고 아빠와 탁구를 하고 숙소 방으로 올라가 잘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성산일출봉에 갔다. 날씨가 더워서 산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사진만 찍고 왔다. 다음으로 바다에 한 번 더 수영을 했다. 그 바다에는 모래가 많아서 그런지 몸에 모래가 붙어있었다. 모래를 털고 밥을 먹으러 편의점에 갔다. 밥을 먹고 7시 정도에, 민속촌에 가서 공포 체험을 하러 갔다. 공포 체험에서 평생 지를 소리를 다 지른 것 같았다.

숙소에 간 다음 밥을 먹고 집에 가려고 공항으로 갔다. 근데 비행기 탑승 시간이 지연이 되어 집에 11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집에 들어오니 집이 가장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하이원 리조트에 간 일

김이환



나는 가족과 하이원 리조트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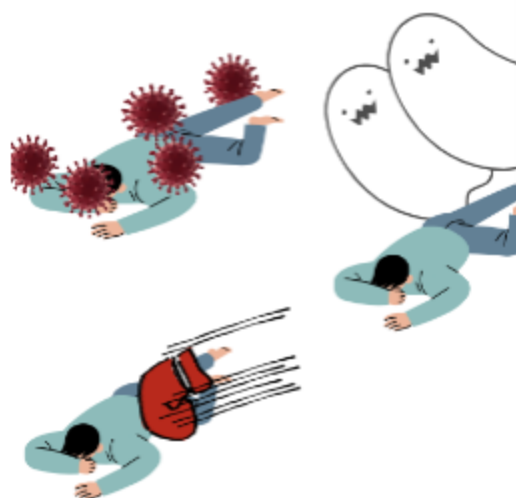
1일차는 가족과 워터월드(워터파크)에 왔다. 가서 처음으로 파도풀을 탔다. 엄마는 무서워서 안 탄다고 하셨다. 두 번째로 워터 슬라이드를 탔다. 1번과 2번이 있었는데 1번 두 번 타고 2번은 한번 탔다. 정말 재미 있었다. 또 유수풀도 탔다. 튜브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덮쳐서 정말 빠르게 질주했다. (거기에서만 유수풀에서 파도를 볼 수 있었다.)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다.

2일차에는 곤돌라를 탔다. 정상에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는데 알파인 코스터가 너무 타고 싶어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탔다. 타고 내려 갈때 시속 40KM로 내려 가가지고 너무 너무 재미있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짐싸고 집에 같다. 갈때는 2시간 30분이 걸려서 힘들었다. 하이원 리조트에 또 가서 워터월드에도 또 가고 싶다.

내가 겪은 일 세 가지

박성찬



[1]모두 다 코로나

어느 평화로웠는진 모르겠는(?)날 TV 뉴스엔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5명...점점 가족들이 좀비 아니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한다. 1번째로는 --가 걸리고, 2번째는 --이 코로나 걸리고, 3번째는--, 4번째는--도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내 방 밖에는 코로나 감염자들이 가득 했다. 밥 먹을 때도 내방에 엄마가 들어와서 밥을 주고 나간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나도 코로나 걸린 사람인 셈 치자고 해서 드디어 내방에서 나갈 수 있게 됐다!!!! 근데 결과는? 그냥 다같이 코로나 걸린게 결과다. 그래도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다행 :]

[2]우주 평범한 싸우는(?) 일

싸우는거는 말할게 아아아아Aaaa주 많지만, 하도 많이 싸워서 기억이 안나는 건 그냥 내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 못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임팩트가 썬 폭ㄹ 아니 싸웠던 일들만 소개를 한번 해보겠어. 일단 첫째로 여동생이 키크이랑 장난감으로 내..그..어 아! 그래 내가 심영이 됐어... 갑자기 생각 하니까 화나네? 아무튼 그래서 싸우는 일 중에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여러가지가 생각이 안나니까 그냥 여기에서 끝!

[3]게임 귀신

그냥 평소처럼 게임 하는데 화면 오른쪽에 검은색 사람 형태가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지. 이것만 생각하면 무섭..

추석에 있었던 일

박준서



2024년 9월 17일 추석에는 정말 재미있었다. 그날에는 추석이라 할머니 집에 갔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추석이라 그런지 차가 막혔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출발했는데 12시 30분에 도착했다. 2시간 넘게 차에 있었더니 너무 힘들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고 난 후 점심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점심을 다 먹었더니 너무 배불렀다. 밥 먹은걸 소화하고 할머니네 앞 놀이터에 갔다. 너무 재미있었다. 사촌 형이 놀아 주었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함께 논 다음에는 사촌 형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할머니네에 돌아오고 나서 보드 게임을 했다. 보드게임은 3판만 했다. 왜냐하면 1판 하는데 40분이 걸렸기 때문이다. 보드 게임을 하고 저녁을 먹었다. 맛있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게임을 했다. 그 후 집에 갔다. 다행히 집에 갈 때는 차가 막히지는 않았다. 재미있는 하루였다.

고양이 알레르기

이규선



9월 17일에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할머니 댁에서 놀고,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끼리 할아버지네 밭에 들어가서 땅콩, 애호박, 고구마 등등 캐고 하룻밤 자게 되었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 드리고 고모네 집으로 갔다. 고모네 집으로 들어서자 고모와 고모부가 우리 가족을 반겨 주었다. 고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보고 있는데 눈이랑 다리 부분이 너무 가려웠다. 얼마나 가려운지 너무 긁었다. 고모가 나를 보더니 눈이 부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모기 물렸나 봐"라고 말하시며 모기 약을 내 다리 부분에 바르셨다. 눈 부분을 본 아빠는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 말하셨고 가위로 내 머리카락을 자르셨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나조차 알게 되었다.

다행히 고모가 준 약을 먹고 통증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인사하고 집으로 갔다. '내가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니...'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세부여행

이시윤



3월24일 오늘저녁에 나는 우리가족들과 3박4일로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갔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행시간이 연착되어 1시간 후에 이륙을 했다.이륙하면서 비행기 창문을 보니 밤에 보는 인천 야경이 멋졌다. 내가 탄 비행기는 제주도를 거쳐 날아가는 거라서 제주도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밤이고 비행기가 너무높은 고도에 있어서 못봤다.

5시간의 비행인데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안준다. 알고보니 제주항공은 기내식을 직접 사야해서 못먹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아빠가 생수 한병을 시켰다. 목이 너무 마르고 물이 미지근했지만 갈증을 참을 수 있었다. 3시간..4시간...5시간!!!! 드디어 5시간만에 필리핀 상공에 날아가고 있었다. 내가 필리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한국은 새벽 12시고 필리핀 막탄세부는 새벽 1시였다. 필리핀은 한국과 시차가 1시간이기 때문에 해가 빨리 뜰려고했다.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착륙시간...그치만...! 갑자기 내 귀 한쪽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귀가너무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니 괜찮아졌다. 이제 필리핀에 입국하니 와....이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마침내 내가 불렀던 그랩 택시 기사가 우릴 반겨줬다.공항 택시 터널을 보니 벌써 수영복을 공항에서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내가 택시에타고나니 갑자기 보잉747화물기가 내위에지나갔다.보니 목적지가 중국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였다. 이제 첫날밤은 어떤 가격이 저렴한 호텔에서 아침까지만 자고 일어나서 조식을 먹었는데...내 입에는 안 맞는거 같다. 그래서 나는 호텔과 가까운 맥도날드에 가서 해피밀세트를 시켰다. 필리핀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을 푸짐하게 담아줘서 놀랬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나를 부르시더니 해피밀 어떤거 고를거냐냐고하니 코난처럼 생긴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도날드가 있었다. 맛있게먹고 세부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까지있는 세부JPARK를 갔다. 난 여기를 5번 와봤다. 여길 마지막으로 온게 코로나가 생기기전이었다. 외국인친구들, 어른들과 영어를 쓰니 너무 쉽고 재밌었다.

그치만 3일후.... 이제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야하니 나는 얼른 수영복을 입고 워터파크에서 좀 놀다가 빨리 바다에 들어갔다 특히 신기한게 필리핀 바다는 바다속에 모래가 없고 산호들과 말미잘 독있는 물고기들 복어들을 보았다. 복어를 잡아볼려고 스노클링 산소 팔대를 빼고 복어를 만지니 갑자기 부풀어졌다. 난 깜짝놀라서 다른데로 도망갔다. 이젠 새벽 2시다. 우리비행기가 4시 비행기라서 얼른 택시를 타고 공항에도착했다. 다행히 시간에 맞게 도착했다 탑승라인에 줄을섰다. 이제 승무원분들이 내표를확인하시고 나를 자리로 안내해주셨다.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로 가고있다. 내비행기는 이륙허가를 받았나보다 비행기가 부웅우웅우웅우웅우웅우웅우웅우웅우웅우웅!!!!!!쾅 이륙했다. 그다음엔 나도못봤다 5시간비행이어서....이제9시 10분 비행기가 착륙하고있다 그치만 지금인천에는 강한바람과비가불기에 착륙이 어려웠지만 기장님이 끝까지 착륙을시켰다.부아아아아앙 쾅!!끼이이잉이 |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휴...착륙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짐을찾고 공항에서 뚝배기 불고기랑 김치찌개를 먹었다.

주꾸미 낚시



이현서

추석 초에 공도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점심으로 불고기, 소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맛있었고, 가게 앞 인공 호수에 잉어(?)도 있었다. 그 후 고모가 아는 카페에서 망고 빙수를 먹었는데 설* 망고 빙수와 비슷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여러 장식품을 보고 고모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집으로 갔다.

다음날 안성 할머니,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 안성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 그리고 다음날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주꾸미 낚시를 하러 갔다. 주꾸미 낚시는 주꾸미가 번식할 때 다른 주꾸미 위로 올라가는 특징을 활용한 낚시다. 보통 불고기 모양지와 주꾸미 모양 추로 낚시하는데 물속에서 찌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주꾸미가 그 위에 올라가 바늘에 걸리게 된다. 4~5 시간 동안 배에서 주꾸미 낚시를 한 후 집에 올 때 게도 사서 가져 갔다. 그날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주꾸미 숙회, 주꾸미 라면을 먹었다. 6명이서 먹었는데도 남아서 다음날 먹었다.

다음날 아침은 안 먹고 놀고 있다. 점심엔 삼계탕을 먹고 저녁에는 게와 게 장에 밥을 비벼 먹었다. 아주 맛있었다. 남은 날엔 놀고 먹고 했다. 재밌는 추석 명절이었다 특히 주꾸미 낚시가 가장 재밌었다! 마지막 날에 숙제를 조금 하고 가족들과 해리포터(HARRY POTTER) 영화를 보았다(5 불사조 기사단)

울진에서 본 해파리!



정준우

울진으로 놀러갔다. 도착하고 나서 치킨을 사 먹었다. 꽤 매콤한 닭강정 이었는데 바닷바람을 받으며 먹으니 더 맛있었다.

닭강정을 다 먹고 낚시(구멍치기)를 했다. 인상어라는 물고기를 낚았다. 처음으로 잡은 물고기였는데, 타이어에 걸려서 후킹이 빠져 버렸다. 그래서 아쉽게 물고기를 놓쳤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날 하트해변에 갔다. 거기서 중간크기의 돌만한 게를 잡았다.

그리고 아빠와 스노클링도 했다. 놀래기,고등어,가시복,쫄복,성게,해삼도 보았다. 그런데! 태평양에나 사는 2m까지 크는 해파리가 있었다. 순간 오싹해졌다. 그날도 낚시를 하러갔다. 그날은 뽕락이라는 물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좀 작아서 아쉬웠다.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해양박물관에 갔다. 창문으로 여러 물고기를 보았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음번에는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에 간 일



한지훈

8월 30일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동안 잤다.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어찌저찌 도착해서 차를 렌트 했다. 그리고 접착빠국? 이라는 걸 먹었는데 흰색 감자탕이었다. 그리고 양궁하려고 갔는데 문을 닫아서 동물 먹이를 주는 곳을 갔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놀고 다음날 해수욕장을 가서 오래 실컷 놀고 아쿠아리움을 갔다. 아쿠아리움에서 보트타고 먹이 주는 체험을 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물고 같은 걸 보고 리조트에 갔다. 물놀이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다음날 워터월드도 가고 펜션도 갔다. 그리고 카트도 타고 양궁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은 재미있고 많은 걸 알수있는 여행이 됐던거 같다 다시오면 양궁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친구들과 주말에 놀기



황예찬

1년 전에 친구들 4명과 피시방을 갔다. 피시방을 가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충전을 조금만 했다. 충전을 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게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었다. (조금 답답했다.)

다 알려주고 게임을 다 같이 하였다. 게임을 저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 게임을 다 하고 시간을 보았다 시간이 5분이 남았다 그래서 친구가 카드를 주면서 "시간 맞게 충전 해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전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친구한테 카드를 돌려주고 친구가 빠진 듯이 봐서 제가 사과를 다 하고 충전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키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다 하고 친구들과 피시방을 나간 뒤 인생 네 컷을 찍으러 갔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인생 네 컷을 다 찍고 난 뒤 쇼핑을 하려고 친구들과 갔습니다. 거기에서 재미있는 소품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사고 싶은 것들이 주변에 천지였지만 내 주머니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피구와 농구를 하며 정말 힘들었지만 또 재미있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가족과 강화도 여행



정다운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날 이었다. 오늘은 가족과 강화도 여행을 가는 날 이었다. 너무 좋았다. 짐을 다 챙겨서 차에 탔다. 강화도 까지 1시간 30분이 걸려서 지루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핫도그를 사고 다시 차에 탔다.

다시 달려서 강화도 캠핑장 에 도착했다. 가서 엄마 아빠가 텐트를 펴는동안 동생과 나는 놀이터를 가서 그네를 타면서 놀았다. 텐트를 다 폈다 해서 우린 다 같이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잤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다 같이 계곡에 가서 2시간 정도 놀고 나와서 샤워를 했다. 점심으로 콘치즈와 크림 파스타를 먹고 누워서 쉬다가 잠깐 마트에 갔다.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사고 다시 돌아가서 놀다가 저녁으로 라면과 다른 것 들을 먹고 잤다.

다음날 아침 텐트를 개고 캠핑장을 나와서 중국집을 가서 밥을 먹고 강화 루지를 타러 갔다. 가서 표를 끊고 케이블카 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안전 교육을 받고 한 명씩 내려갔다. 다 타고 편의점에 가서 간식 먹으며 쉬다가 차에 탔는데 피곤해서 차에서 자면서 집에 왔다. 너무 재밌는 여행이었다.

나의 첫 홈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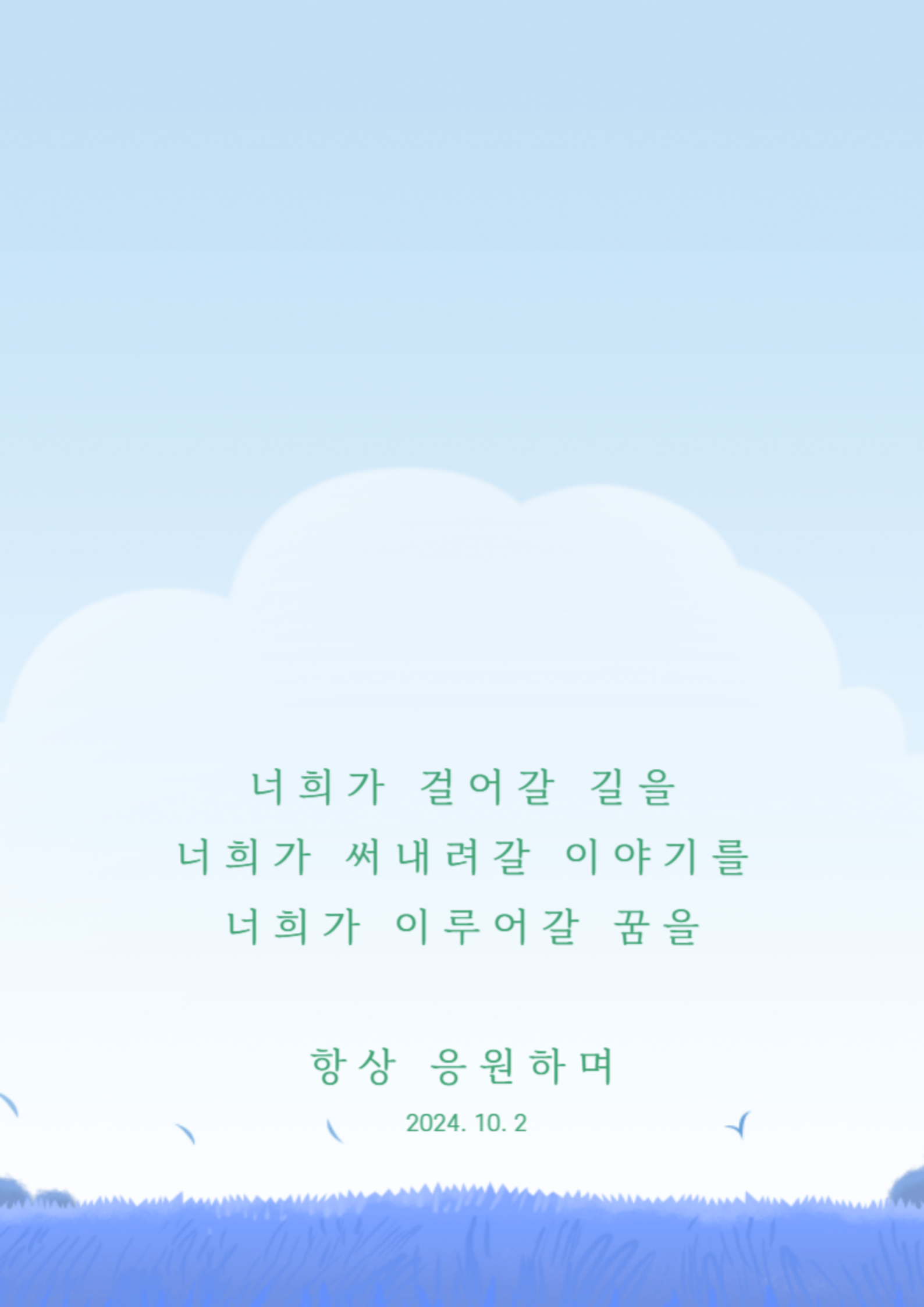
정유민

나는 친구들을 불러서 야구를 할 준비를 했다. 그날은 비가 살짝 왔었다. 밖에 나왔다. 공기가 축축했다.

우린 만나서 몸풀기 캐치볼을 하고 야구를 했다. 1번 타자가 삼진을 당했다. 나는 2번 타자로 나와서 3구 삼진을 당했다. 아쉬웠다. 그 뒤 3아웃이 되고 상대 공격에 내가 투수를 했다. 1회 만에 1이닝 2피안타 2볼넷 2실점을 했다. 너무 아쉬웠다. 나의 다음 타석이 1아웃 이었다. 초구는 헛스윙을 했다. 2, 3구는 볼이었다. 그 뒤 4, 5, 6구는 파울로 쳐서 2볼 2스트라이크가 되었다. 난 7구째에 배트를 세게 휘둘렀다. 깡! 소리가 났다. 공이 높게 솟쳐서 담장을 넘었다.

나의 첫 홈런 이어서 상대 팀 친구들도 기뻐해 주었다. 근데 비가 적게 오다가 내가 홈런 쳤을 때 많이 왔다. 하지만 나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1, 2, 3루를 밟고 홈을 밟았다. 너무 기뻐다.

나는 흥이 올라 다음 타석에 2루타를 쳤다. 너무 기뻐다. 그 뒤 친구들이 나를 업고 한 바퀴를 돌았다. 그 뒤 나는 집에 가서 공부를했다.



너희가 걸어갈 길을
너희가 써 내려갈 이야기를
너희가 이루어갈 꿈을

항상 응원하며

2024. 10. 2